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아프리카 동쪽에서는  
1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중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굶주림 속에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4 해외원조주말

[제 1독서] 이사8,23-9,3  
[화답송] 시편27(26),1.4.13-14(◎1-7)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독서] 1코린1,10-13.17  
[복음 환호송] 마태4,23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4,12-23<또는4,12-17>

성가	8시 미사	입당 26	봉헌 218 217	성체 167 166	파견 29
	11시 미사	입당 26	봉헌 218 217	성체 167 166	파견 29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3주일(1월 26일)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연중 제5주일(2월 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오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최분다(수영)	서테레사(춘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어둠 속에 큰 빛을!

오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가셨다고 전합니다. 드디어 그분께서 본격적인 구원활동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위축이 되었겠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위함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가 아닌 갈릴래아에서 말입니다. 복음은 이에 대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마태4, 14)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자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옛날에는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사8, 23:9, 1)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래아’는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뒤떨어진 곳으로 이방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가장 천대받던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민족들의 갈릴래아”라고 불렸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 (마태4, 16)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 구원의 기쁜 소식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방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빛이 떠오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 그리고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며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찬 그런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지나친 물질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이 이 세상을 점점 암흑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1코린1, 10)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살기 좋고 사랑스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마태4, 16)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구촌 기아퇴치 캠페인 선포식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10억 명 가까운 인구가 굶주리는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시며, 이러한 현실을 모른 척하거나 기아가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가면 결코 안 된다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원조 주일인 오늘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바로 우리가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함을 깨달읍시다. 아멘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차멸미를 하는 이유

신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다가 ‘차멸미’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간혹 차멸미를 하는 분이 있는데 멸미란 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차멸미를 하는 분들은 흔히 버스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또 멸미가 심한 사람도 직접 차를 운전할 때는 전혀 멸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득 차면 마술처럼 유리잔이 더 커져 버린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물이 가득 차면 아래로 흘러넘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럼에도 잘못된 편법이나 탐욕 때문에 막혀버린 자연의 순리... 마음에 되새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앞이 훤히 보이는 버스 앞자리에 앉거나 직접 운전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달리는 도로가 왼쪽으로 휘어졌는지 혹은 오른쪽으로 쓸릴지 하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멸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즉 멸미란 것은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갈지, 그래서 몸이 어느 쪽으로 쓸릴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새해, 이 한 해 동안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불안감 내지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울렁증, 멸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해 희망’이란 게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뭔가 낫겠지. 분명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야. 암, 꼭 그래야지.’라는 희망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작년과 다르기 위해서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방식이 작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엄두를 못 냈던 일도 용기 내서 해보아야 하고, 끝을 게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버릴 게 있다면 버려야 하고, 떠날 일이 있다면 과감히 자리를 털고 떠나야 합니다. 이런 과감하고 새로운 결심을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4, 17) 오늘 은 ‘해외 원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열심히 덕분에, 짧은 기간에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대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종교가 일러줘야 할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 공동체적 행복을 일깨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기에  
“네”라고  
응답할 수 있으셨던 성모 마리아  
구세주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은 마음에 담을 만한 말씀입니다.

글\_이해인 수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과거에는 유리잔이 가득 차면 흘러넘쳐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잔이

말씀의 향기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촌 중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누님! 보속을 안했는데, 영성체 해도 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보속을 왜 안 해?” 신부님께서 보속을 안주시고 ‘나가!’ 라고 해서 보속을 못 들었어요.” “왜 신부님께서 보속을 안 주시고 ‘나가!’ 하셨을까?”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마누라가 판공성사 보라고 독촉을 해서 고해소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런 신자를 만나면, 고해소의 신부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이고 저런, 죄가 없구나! 넌 니 맥 마음을 상하게 한적 없어? 아버지 뵈러 간다고 하고 못 간 적도 없어? 영똥하게 화낸 적은 없어? 날마다 하느님을 의탁하며 감사기도 드리니?” 라며 이것저것 물어보니 “누님! 그런 소홀함을 죄라고 하는 거야?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중심적인 도덕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넓은 마음과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죄를 의식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아담의 죄를 “오, 복된 죄(Felix Culpa)!”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오, 복된 죄!” 라고 부활전야에 감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면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초대하십니다. 온통 주위가 악이요 어두움인데도, 이러한 악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은 하늘나라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신선하고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인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면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늘나라의 신비에 조금씩 다가가는 내적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나선형의 지름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도전이고 감격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작은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냇가로, 냇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대양으로, 대양에서 우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하느님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를 사는, 일상의 하늘나라 경험이 감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면,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이 되면 하늘나라를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하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찾게 하신 예수님의 회개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홍성임 수녀  
투스 평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도원

+ 목자의 소리

“빛의 부재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우리를 제자리에서 맴돌게 할 뿐  
그 어디로도 이끌지 못하는 길로부터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분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앙의 빛 3항

가톨릭전례

두 가지 길 - 덕과 죄

하느님께서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부르심은 양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직접적인 가르침(성경과 성전)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로써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덕행”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부할 때는 “죄”로 떨어지게 됩니다.

1. 덕의 본성

- 덕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매 밴 확고한 마음가짐이다. 덕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 영적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선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들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선택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03항).-

이 선을 향하는 습성과 힘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완전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덕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덕이 있는 인간이란 아무런 윤리적 결함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느님이 그에게 지시해 주는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 인간적인 덕과 향주덕

인간적인 덕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선행의 능력입니다. 즉 반복되는 훈련으로 선행을 기꺼이 또 쉽게 하게 만듭니다. 그 예로 오랫동안의 훈련으로 판단력을 키우면 상황에 따라 쉽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덕은 흔히 4추덕이라고 불리우며, 현명,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인간적인 덕들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줍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향주덕이 필요합니다.

향주덕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협력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덕은 세례 때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수많은 불신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다시 믿음을 되잡는 반복 속에서 우리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3. 죄의 본질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덕의 본질인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는 죄가 됩니다. 어떤 개별적인 악한 행동들(거짓말, 도둑질 등)이 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보다 근원적인 죄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시편 #50:6). 죄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 그러므로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50항).-

4. 죄의 증식

반복되는 훈련으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덕과 향주덕이 형성되는 것처럼, 죄 역시도 반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반복됨으로써 죄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강화되고, 심지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처럼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의심을 뿌리째 소멸시키지는 못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65항).-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하느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 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월 26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서데레사 기일	성루카
	연 모든 조상님들	임루시아
	생 찬미성가대	유리디아
	생 김아가다(옥희)	조바실리오
	생 채헬렌	박데레사
	생 김안젤라(영선)	하늘의문 Pr.
	생 이아네스(명란)	은총의어머니 Pr.
	생 김요한(정훈)	김아네스(옥순)
	생 김유릿다	이골롬바
	생 원안젤라	부모
1월 28일 화	연 최베드로(취중)	가족
	생 채토마스	채헬렌
	생 임안젤라(승주)	김데레사
1월 29일 수	생 채토마스/줄리 가정	박데레사
	생 대녀들 가정	박헬레나
2월 1일 토	연 김마테오/아가다기일	김카타리나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연 김베드로(영길)	이엘리사벳
	생 레지오의 활성화	꾸리아
	생 천다니엘/아네스가정	이엘리사벳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60	242	-	302
헌 금	\$426	\$1,132	-	\$1,558

< 교무금 > \$2,320

허은석(11-12/13) 정일양(1) 박영실(1-2)  
 한서연(1-2) 허순구(1-2) 이재우(1) 전덕천(1-2)  
 황현숙(11-12/13) 김영민(1) 차영화(1-2)  
 박찬길(1-2) 정창희(1) 김경년(1) 임희숙(1-12/13)  
 채성일(1-2)

< 성소후원금 > \$160

허은석(11-12/13) 박영실(1-2) 차영화(1-5)  
 박찬길(1-2) 정창희(1)

< Bishop's Appeal >

박영실(1-2)

< 감사헌금 > -

< 2차 헌금 > \$772

\* 고 임재선 그레고리오 형제님 가정에서 선종  
 봉사회에 \$100 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오늘은 본당에서 설을 맞아 전신자에게 떡국이 제공됩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설합동위령미사 : 1월 26일(오늘) 교중미사 중

◆ 전례안내

2월 1일(토) : 성모성심미사(꾸리아 월례회)

2월 6일(목) : 성시간

◆ 주님 봉헌축일 초 봉헌 : 2월 2일 교중미사 중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할 초 및 기타 전례 용품을 봉헌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성합니다.

◆ 이임/부임 미사 안내

이임미사 : 2월 9일

부임미사 : 2월 16일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울드레야 모임 : 2월 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구역장회의 : 2월 9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요아킴/안나회 : 2월 9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북가주 25차 ME 주말 환영식

1월 26일(오늘) 저녁 6시 친교실

\* ME 부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길잡이 학교 4기 수강생 모집

대상 : 관심 있는 꾸르실리스따 모두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3-5장**

|       |             |          |
|-------|-------------|----------|
| 5 구역  | 1월26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10 구역 | 1월31일(금) 6시 | 윤성진 루카 맥 |

◆ 서중부 남성 제 11차 영어권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일시 : 2014년 6월 26일 ~ 29일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영어권 꾸르실료입니다. 남성 꾸르실리스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전례 성가대 안내

\* 새로운 단원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연습시간 : 교중미사 전(오전 10:00 ~ 10:50)  
교중미사 후 1시간

\* 성가대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보이스 클리닉도 있습니다.

-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

◆ 교구수첩을 받지 못하신 사목위원이나 단체장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 가십시오.

◆ 세금보고 자료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 가십시오.

**주일학교 소식**

- 영어미사 : 12시 30분